

# 도심 내 수목 폭염 대비 관리 만전

### 전주시, 물주머니 설치 등 가로수·공원·녹지 내 수목 특별관리 대책 추진

전주역 앞 찻마중길과 전주한옥마을 가로수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식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심 수목의 고사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도 가동된다.



전주시는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관수차량과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가로수와 공원·녹지 내 수목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관수차량과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가로수와 공원·녹지 내 수목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대상 지역은 ▲기린대로와 팔복로, 견훤로, 번영로 등 신규 조성구간 ▲효천지구·예곡시티·만성지구 등 식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생육이 정상적이지 않은 구간 ▲철쭉, 회양목 등 가뭄에 약한 수종이 식재된 따죽지·교통섬·공원·녹지 등 300여 곳이다.

우선 시는 60여 명의 인력과 자체 보유중인 관수차량 4대, 임차 관수차량 2~4대를 매일 투입하고, 찻마중길과 한옥마을, 교통섬 등 특별관리 구간에 오는 30일까지 물주머니 2500여 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폭염 및 가뭄으로 쇠약해진 수목에 대해서

는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물과 함께 영양제를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갈수록 악화되는 기상여건을 감안해 건조에 강한 수종의 식재를 확대하는 한편 토양보습제와 개량제를 활용해 토질을 개선하는 등 생육환경 개선작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부장은 "도심 내 수목은 무더운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며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가로수·공원·녹지 등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 접수

전주시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선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커머스 활용 지원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각각 다음 달 13일과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커머스 활용 지원교육'의 경우 ▲온라인 상점 개설교육 ▲온라인 라이브방송 제작교육 ▲1인셀러, 쇼호스트 교육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모집된다.

활용한 기본교육으로 15명 한도로 2개 기수가 운영된다. 라이브커머스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상점 개설과 라이브 방송을 위한 사전 준비교육이 제공된다.

온라인 라이브방송 제작교육은 라이브커머스 경험은 있지만, 전문성이 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개 기수가 운영된다. 기수별 15명 한도로, 상품판매 운영교육부터 라이브방송 제작 송출 방법 등이 교육된다.

1인셀러, 쇼호스트 교육은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호스트(전문판매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10명에

한해 1개 기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스토어 상세페이지 개발 지원, 제품컷 촬영 지원, 라이브방송 송출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교육 참여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 및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J-디지털교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단, 1인셀러, 쇼호스트 교육은 쇼호스트를 꿈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6.25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화랑 무공훈장 전수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장실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한 故 이관중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 수여했다.

화랑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6.25 전쟁 중 경북 영천에서 전사한 故 이관중 일병의 동생인 이완중 씨에게 화랑무공훈장 및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또 자리를 함께한 무공수훈자 전복·전주시지회 회원들과 묵념으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김윤상 기자

# '우주로 1216'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V-log 제작·캐릭터 그리기·작품 전시 등 진행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12~16세) 전용 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우주로 1216'에서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다음 달까지 ▲V-log 제작: 우주로 가는 길 ▲캐릭터 마카드로잉: 나만의 부캐 만들기 ▲컬렉션 도서 전시: 반려동물 고양이 이야기 등 다양한 '우주로 1216'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V-log 제작: 우주로 가는 길'은 다음 달 5~7일과 14일, 4회에 걸쳐 트윈세대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각자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캐릭터 마카드로잉: 나만의 부캐 만들기'는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를 뜻하는 부캐를 만들고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짧은 일러스트 작가와 함께 인물의 특징을 잡는 법을 배워



컬렉션 도서 전시: 반려동물 고양이 이야기.

보며 마카를 이용해 캐릭터를 그리게 된다.

'반려동물: 고양이 이야기' 컬렉션을 통해 고양이를 주제로 한 독립출판물을 살펴볼 수도 있으며, '우주인이 만난 지구인 예술가'를 통해 '그 곳의 온도'라는 주제로 전시되는 유지원 작가의 작품과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3D펜, 뜨개질, 드로잉, 슈링클스, 메이킹스페이스 등 우주로1216만의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우주로1216 운영시간은 화~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063-230-1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우주로 1216은 주말에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오고 갈 정도로 트윈세대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개관 이후 3000여 명이 견학과 인사이트 투어를 다녀간 만큼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공간"이라며 "앞으로 더 경험의 일상이 되는 트윈세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주로 1216'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낀 세대인 트윈세대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북돋움(소통) ▲공공존(발산) ▲속속존(창작) ▲꿈꿈존(사색)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김윤상 기자

#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추진 박차

###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주시가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 향상을 돕는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최근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치유농업 기반 조성, 치유서비스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우선 농촌진흥청, 전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협력해 용정동에 위치한 치유농장인 '레인보우팜'에서 '청소년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다음 달까지 12회

에 걸쳐 추진한다. 프로그램에는 Wee센터가 선정된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치매 노인 10가족을 대상으로 레인보우팜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대안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농촌진흥청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기로 했다. 내년에는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자녀 관계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영 치유텃밭 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원예치료 상담실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정을 발판 삼아 현재 1개소인 치유농장을 오는 2025년까지 5개소로 늘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등 치유농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황권주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 오던 치유농업 육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